조계종 '법인관리법' 상정 파동

법 내용놓고 종회·총무원 신경전

필요성 인정…'현실' 물려 논란 예상

'법인관리법'(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놓았던 조계종 제117회 임시중앙종회는 '상정' 그 절차에 이의가 제기되며 논란이 가속되다가 드디어 종회까지 폐회시키는 파행운영으로 치달았다. 종법개정특위(위원장 성문)가 종회개최 3일전 서둘러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법인관리법'은 선학원 불교방송 진흥원 등 재단법인 22곳, 청교련 등 사단법인 7곳, 연꽃마을 등 복지법인 7곳, 동국학원 등 학교법인, 공익법인, 영리법인 및 기타 특수법인 등 조계종 종무기관이나 승려·재가불자가 설립한 법인을 모두 조계종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법안이다.

당초 '선학원특위(위원장 법등)'가 선학원 등 법인체의 문제를 근본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제정필요성은 여러번 대두돼 왔다. 법인 등에 사찰을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잘못하면 조계종은 헛껍데기 종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법인법의 제정을 서두르게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임시종회 개최에 따라 총무원과의 조율이 전혀 안된 관계로 종회 위주로된 내용에 총무원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종회 부설인 종법개정특위 권한에 법의 개정 및 폐지뿐 아니라 제정까지도 포함되느냐는 논란과, 심의를 한 법제위원회가 성원미달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으로 법제정이 차기종회(8월중 예정)로 넘어갔다.

총무원은 법인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종법개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처럼, 입법기관의 역할을 넘어 행정집행권까지 행사하려 든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인관리위원회 15인 중 중앙종회의원이 13명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종회가 무소불위의 거대권력기구화해 가뜩이나 약체 총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총무원을 더욱 위축시키는 일로 여기며 관리위원회를 총무원 산하에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관리법 제정과 더불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폐지 유무문제도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관리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화라는 세류에 따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국학원 이사 만료 시한과 맞물려 이또한 이번 종회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노출시켰다.

이번엔 폐기됐지만 차기종회에서도 '법인관리위원회' 구성을 핵심으로 한 법인관리법안의 상정은 종회와 총무원 그리고 종회를 양분하고 있는 세력들의 이해 관계로 격론이 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

진각종 성지조성 부지희사 정인서·김복순 부부

"부처님 재물 회향합니다"

진각종이 진기 50주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지조성불사에 써달라며 약 2천5백여평(시가 20억원)의 부지를 서슴없이 희사한 교도가 있어 교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진각종 경주 선혜심인당의 교도인 정인서, 김복순부부가 바로 그 주인공.

평소 불우한 이웃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온 부부불자는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부지를 희사, 더욱더 세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반신불수로 거동이 어려운 가운데도 평소 근검 절약하는 생활자세로 주위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온 김복순 할머니는 1주일에 2, 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남편 정인서씨의 간호도 해오고 있다.

정씨부부는 "우리 인생에 생노병사가 있듯 재물에도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며 "부처님의 은혜로 얻게된 약간의 재물을 다시 세상에 환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근〉

BBS '밤창 가족' 자비나누기

X세대 팬 클럽 5백여명 월 2회 고아원등서 사회봉사

◇ BBS 밤의 창가에서를 후원하는 '밤창 가족'은 방송가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팬클럽이다. 사진은 고아원을 방문한 후 참가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노래가 좋고, 사람이 그립고, 불교가 따뜻하다'는 BBS '밤의 창가에서'(진행 김광석 장필순 24:20~01:55)가 장기간 인기정상을 누리는 이유는 뒤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는 '밤창가족'(회장 방미애)이 힘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94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온 '밤창가족'은 고정회원만도 5백여명에 이르는 방송가에서 유일한 프로그램 팬클럽이다. 회원들은 막연히 노래나 연예인을 좋아하기만 하는 철부지들이 아니다. 회원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야무진 X세대들이다.

작년 3월부터 고아원, 교육원, 지체부자유시설을 찾아 정기적으로 월 2회 사회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는 '밤창가족' 회원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월 4회로 늘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광석, 한동준씨가 진행하던 지난 하예는 고아원 방문계획을 발표하자 1천여명이 신청하여 관계자들을 쩔쩔매게 한 적도 있다.

'밤의 창가에서' 담당PD 구경모씨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용인자연농원에서 '여름캠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비해 보답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행복한(?) 엄살.

지난 5월 프로개편과 함께 한동안 뜸했던 김광석씨가 다시 진행을 맡고 장필순씨까지 가세하여 '밤창가족'들은 활동도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고.

'밤창가족' 회원들은 기초교리강좌 등의 불교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임원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 불교방송가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종단개혁안 통과

70회 임시종회, 세입세출 결산안등 처리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벽산스님)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70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발전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종단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종회의원 60명 가운데 32명이 참석한 이날 종회는 종단 개혁안을 비롯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총무원 간부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본지33호 참조)

향후 본격적인 개혁불사에 들어갈 개혁시안은 △사찰수입의 10%를 종단분담금으로 납부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총무원청사를 봉원사로 이전 △불교의식의 한글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시안은 법령개정소위원회를 구성, 필요한 종헌종법개정을 위한 시안을 만들어 8월에 개최될 예정인 71회 정기중앙종회의 개정절차를 마친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btn 시청률 6위

케이블TV 조사결과

한국조사개발원이 5월9일부터 31일까지 일반시청자의 매체접촉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교TV는 20개 공급업체중 6위의 시청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광주에 거주하는 만12세에서 만60세까지의 남녀 9백39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개별면접하여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영화, 스포츠, 음악, 오락이 수위를 차지했으며 불교텔레비전은 서울이 0.5%, 광주가 1.3%의 수치를 기록, 시청빈도가 높은 케이블TV로 분류됐다. 또 광고부분도 수주율이 5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선종 법수종정 취임

미륵선종(총무원장 이혜성)은 지난달 25일 대전 구한사에서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2대 종정 법수스님 취임식'을 성황리에 거행했다.

이날 구한사는 종정 취임식에 이어 미륵대불 점안식과 6.25 전몰장병 천혼재를 봉행했다.

◇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중국불교협 조박초회장은 23일 한중불교의 폭넓은 교류를 다짐했다.

천태종·중국불교협 우의 확인

23일 북경서 조박초회장 만찬 주최

국청사 조사기념당 낙성식을 마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전운덕 총무원장 등 70여명의 스님과 인사들은 6월23일 조박초 중국불교협회장이 초청한 만찬에서 한중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도용스님은 국청사 조사기념당 건립에 협조해준 중국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회장은 "국청사 조사당은 1천년후에도 역사적 의의를 지닐 것"이라며 "대각국사와 상월조사 등 한국의 두 조사를 중국에서도 조사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전운덕 총무원장 역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중국불교 발전이 동북아 불교발전과 불교의 세계화에 큰 몫을 할 수 있으므로 양국이 더욱 협력하자고 말했다.

광복절 5부작 다큐 '개화승 이동인' 제작

불교방송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개화승 이동인'을 5부작 특집 다큐멘타리로 제작한다.

자료수집 및 연구에만 1년6개월이 소요된 특집 다큐맨타리는 동경, 요꼬하마,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를 1달 보름동안 현지 취재하는 대작이다.

불교방송은 이와 함께 근대정치사에 등장한 약 8개월 이외에는 행적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동인스님이 거쳐갔던 역사의 현장을 되짚어보고 그를 한국 역사의 전면에 끌어올린다는 제작의도를 밝혔다.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차장〉

과연 개혁종회인가

지난달 23일 폐회된 제11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세번 놀랐다.

우선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던 종회가 안건이 5개나 남아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이 이틀만에 다급하게 폐회된 사실이다.

이번 임시종회를 시급히 열게 만든 안건은 처리됐다 하여도 다른 안건이 엄연히 남아있고 쉬고라도 속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서둘러 폐회시킨 사실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혹 종회의원 자신들이 정한 회기를 쉽사리 줄이는 것은 종회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종회차원에서 구성됐던 특위를 즉석에서 해체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이것이 표결을 거쳐 너무나 쉽게 해체된 점이다. 물론 선학원특위라든지 총무원무승인재산처분특위는 집행기관인 총무원에서 주관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종회차원의 특위가 꾸준히 일을 진행시켜 성과가 가시화되는 지점에 와있고 또 누구(?) 짐을 누가(?) 대신 져 주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첨예한 난제를 종회와 총무원이 공동보조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감정 폭발(?)의 결과인 특위 해체는 과연 종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존립목적까지 모호해진다.

그리고 겸직금지 등 개정된 법으로 인해 초선의원들이 대거 진출, 전체의석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소수인 다선 의원들이 너무나 선배대접을 못받고 있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따라서 상승작용으로 다선의원들이 선배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종회는 81명의, 각 지역과 비구니계·교육·포교·학술·선원·문화 등 각 분야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분명하건대 발언권자는 늘 한정돼 있다. 마이크를 몇몇 의원들이 독점, 태반이 넘는 의원들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발언 한 번 없는 채 자리만 지키고 있다.

물론 개혁종회는 토론도 많아지고 상당히 활성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좋아졌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몇 점일지는 종회의원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서

한국의 명찰 (3일 오전 11시10분~12시)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있는 사찰 월정사. 643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였다.

가수 설운도 인생이야기

김병조의 스타쇼 (5일 11:10~12:00) 잃어버린 30년을 시작으로 대스타가 된 설운도. 가수가 되기 위해 좌절과 절망을 거듭했던 인생이야기를 들어본다.

김지하시인 초대 토론

btn특강 (6일 오후 12시30분~13시20분) 김지하시인을 초대하여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에 대해 토론 한다.

사원연구가 이재창박사

나의 삶, 나의 불교 (8일 11:10~12:00) 부처님 가르침을 펴기에 변함없이 살아온 사원연구의 대가 이재창박사의 삶과 불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다.

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

32스페셜 (9일 오후 8시 15분~9시5분) 국립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공연실황을 녹화방송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현대찬불가의 기원 조명

바로보는 불교역사 (4일 14:10~15:00) '현대찬불가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되짚어 본다.

'한국불교' 주제로 퀴즈

퀴즈대장경 (5일 오후 3시 5분~3시45분) '한국불교'를 주제로 풀어보는 퀴즈시간.

부처님 당시 수행승 생활

교리강좌 (6일 오전6시40분~7시) 부처님 당시 수행승들의 생활상을 들어본다.

밤을 주제로 한 영화음악

영화음악실 (8일 오후 10시5분~11시) 음악칼럼니스트 최우정씨와 함께하는 영화속의 밤을 주제로한 음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김흥국·이자연 등 출연

BBS백팔가요 특집 공개방송 (9일 12:10~13:55) 김창남의 진행으로 김흥국 이자연 권승엽 문희옥 녹색지대 박상민 좌회전 변진섭 Mr.2 서지원 제트 잉크 등이 출연.

30초 건강비법 "편작전자침" 공개

도사부 제조허가 제 502호 제조원 : (주)성한 앤드김
도사부 제조품목허가 제 1호 공급원 : (주)대 진 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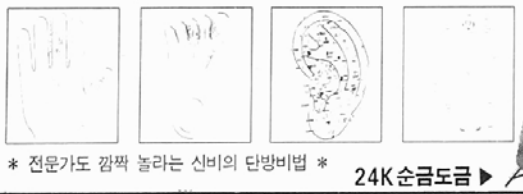
막힌 혈을 뚫고 멈춘 피를 돌게하는 무통무혈의 신비의 한방전자침

특수센서가 스스로 "경혈"을 찾아주는 전자동 전자침 (하루 20분 투자로 온몸이 편안해 집니다.)

89년 화타전자침 국내 최초개발 7년간의 기술 축적으로 95년 "편작전자침"으로 탄생

컴퓨터가 침 자리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동양침술의 기적 "편작전자침"은 침술의 고장 중국을 비롯 미국·영국등 세계 곳곳에 수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는 가정상비용 전자침입니다.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도 깜짝 놀라는 신비의 단방비법 *

가정비상용 컴퓨터 전자침 살갗을 뚫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미국·영국수출

국제 보증서로 1년간 아프터 써비스 보장

보(+), 사(−)스위치 침의 보(+) 사(−) 스위치로서 질환에 따라(+)(−)로 맞추어 사용

▶감도조절기 편작전자침의 핵심 기능인 침놓는 자리 (경혈)를 정확하게 찾아줌

▶주파수조절기

▶강도조절기 침의 혹수(1호~7호)

▶개폐스위치 전원스우치를 ON에 놓으면 탐색등에 불이 켜짐

▶치료버튼 극초 저주파를 경혈에 주입시키거나 경혈 탐색기능

▶10단 탐색등(3단적색, 7단청색) 침자리를 접근하면서 청색등이 차례로 들어와 침자리에서 적색등 꺼짐

▶탐색 및 치료침 살갗을 뚫지 않고 경혈에 특수전류 자극하여 부작용이 없고 누구나가 안전하게 사용

24K 순금도금 ▶

지금!! 바로 주문 하십시오

■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신비의 침술을 직접 체험해 보세요!

- 편작전자침은 수침, 족침, 이침, 체침을 모두 놓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침을 놓을 수 있다.
- 침자리(경혈)을 스스로 찾는다 (특수센서)
- 살을 뚫지 않는다.
- 시술시 전혀 아프지 않다.(무통)
- 부작용이 전혀없다(순금도금)
- 안전하다.
- 효과가 매우 신속하다. (급성질환에 직효)
- 엄마가 아기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침을 놓을 수 있다.
- AIDS나 간염에 감염될 우려가 없다.

■ 가정상비용 전자동 전자침

- 가정·학교·직장·운동팀·체육관·헬스크럽·테니스·골프장·에어로빅

보너스 1 편작 보감 Ⅰ

-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361혈의 정확한 위치 치료질환이 칼라도해로 쉽게 설명
- 침으로 치료 가능한 모든 질환의 경혈이 색인으로 첨부
- 전문인을 위하여 14경락별 경혈을 세계공통기호로 표시
- 총350여 질환의 비방 수록
- 칼라 4×6배판 460쪽

보너스 2 편작 보감 Ⅱ

- 전면을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질환별 경혈점 표시
- 칼라 4×6배판 192쪽

■ 비법에 수록된 비방 128가지

두통, 편두통, 조루, 고 지혈압, 위산과다, 만성변비, 통상, 당뇨병, 치통, 감기, 생리통, 물순, 냉대하, 기미, 주근깨, 임균중독, 담배끊는 혈, 정력증강, 좌골신경통, 임포텐스, 설사, 위, 십이지장 궤양, 금체, 풍치, 구강익취, 편도선염, 아뇨증, 무릎통증, 관절염, 팔다리의 저림 마비, 각종 염좌, 여드름, 숙취, 테니스 골프엘보우, 허리통증, 졸도, 습진, 소화불량, 풍연증, 콜레스테롤 등

보너스 3 실체 경혈도 3매

- 실제 인체를 촬영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체계적 경혈 표시
- 4절지 3매

보너스 4 건강생활 대강좌

■건강강좌 유명 강사진 —

홍문화(약학박사) 유태종((식품공학박사) 한국남(의학박사)

1 자궁암, 유방암 2 원만한 부부생활
3 술 담배와 건강 4 올바른 식사의 지혜
5 당뇨병, 고혈압 식이오법 6 간장병, 신장병 식이오법
• 카세트테이프 6개, 총12강좌, 자연의학연구회

보너스 5 건강교실(가정건강지침서)

1 당뇨병백과 2 고혈압백과 3 신장병백과
4 간장병백과 5 암백과 6 심장병백과 7 위장병백과
8 호흡기질환 9 관절염 류머티즘 10 자율신경실조증
*편집위원 : 홍문화, 유태종, 김경한, 원대진 (전10권)

보너스 6 이침(耳) 경혈도2매

- 인체의 상응 부위를 그림으로 세밀히 표시
- 이침 혈자리를 정확히 감지

보너스 7 이침(耳) 사용비법 및 비방

- 편작전자침으로 이침 진단법 및 사용법 공개
- 최신 중국 이침 치방공개(금연, 금주, 미용 등)

보너스 8 편작 36 비방

-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걸리는 36가지 병의 비방 공개

* 상품 8가지를 추가로 증정합니다. *

수신자 부담서비스 080-922-7777 이 전화는 받는쪽에서 부담합니다.

특별공급가 ₩158,000원
■분 할 가 ₩ 30,000 × 6회
☎전화 주문 하시면 배달해 드립니다.
VISA LG
*카드소지자 장기분할 혜택드림

구입처
■서울
●서울 02)712-8711/2
●서울 02)714-9632/3
■경기도 (인천 부천 부평) ●인천 (032)502-5533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원 (0331)42-2908 (안양 의왕 안산) ●수원 (0331)45-2904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성남 (0342)732-1257 (의정부 일산 파주 동두천) ●의정부 (0351)874-3174
■충청도 (대전 목천 금산 영동 충남전역) ●대전 (042)581-0151 (청주 충주 조치원 공주 충북전역) ●청주 (0431)65-8180
■경상도 (부산 김해 양산) ●부산 (051)628-2489 (대구 경산 영천) ●대구 (053)653-0623 (울산 현양 기장) ●울산 (0522)60-7996 (포항 구룡포 연일) ●포항 (0562)81-2976 (경주 안강 감포) ●경주 (0561)749-6586 (상주 영주 단양) ●상주 (0582)34-0630 (안동 청송 영덕 영양) ●안동 (0571)52-7706 (구미 왜관 김천 상주) ●구미 (0546)456-4600 (마산 함안 진해 충무) ●마산 (0551)56-7685 (진주 사천 삼천포) ●진주 (0591)746-7551
■강원도 (춘천 가평 화천 양구) ●춘천 (0361)51-0007 (원주 횡성 홍천 제천) ●원주 (0371)46-8260 (강릉 주문진 속초) ●강릉 (0391)42-6830 (동해 삼척 태백) ●동해 (0394)32-5725
■전라도 (광주 나주 목포 전남지역) ●광주 (062)524-8110 (전주 이리 군산 김제 전북지역) ●전주 (0652)252-8862 (여수 여천 순천 광양) ●여수 (0662)666-2037
■제주도 (제주 서귀포 성산포) ●제주 (064)56-3007